

국제인권 뉴스레터

2019 MAY

유엔 인권이사회 제40차 회의 종료

29개 인권 관련 결의안 채택

[Readmore](#)

유엔, 여성의 대표성 확보 필요 강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여성 리더십 관련 성명 발표
유엔,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여성의 사회지도층 진출 필요 강조

[Readmore](#)

유엔,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 발표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2016년 인신매매 건수가 지난 13년 중 고치라고 발표

[Readmore](#)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50주년

유엔 인권이사회, 민족주의 포퓰리즘과 인종차별 관련 논의 개최

[Readmore](#)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할 빈곤과 불평등

유엔인권최고대표, 불평등 문제 할 수 없다고 경고

[Readmore](#)



세계보건기구, 건강은 '특권'이 아니라 '권리'라고 강조

유엔, 총보다 깨끗하지 못한 식수로 인해 사망하는 아동이 더 많다고 발표

[Readmore](#)



평화적 집회의 권리

유엔 전문가, '노란조끼' 시위대에 대한 인권침해 비판



[Readmore](#)

기업과 인권

유엔, 글로벌 투자기관들에게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실사 촉구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Readmore](#)

위험받는 주거권

유엔 특별보고관,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호 호소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Readmore](#)

유엔, 여성인권 증진 보장 촉구

유엔, 법적으로 젠더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에 필수적이라고 강조
유엔인구기금, 임신·출산을 포함한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관련 보고서 발표

분쟁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유엔 사무총장, 무력분쟁과정에서의 아동 인권침해 예방 캠페인 실시
유엔, 무력분쟁시 시민피해 최소화 촉구



JUNE CALENDAR



JULY CALENDAR



AUGUST CALENDAR

유엔 인권이사회 제40차 회의 종료



UN Photo by Violaine Martin

유엔 인권이사회, 제40차 회의 종료

유엔 인권이사회(HRC)는 장애아동 인권, 환경권 운동가 등 29개 인권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며 제40차 회의를 종료하였습니다. HRC는 회의 기간 33명의 독립전문가 및 유엔 조사단의 보고를 듣고, 39개 인권 주제에 관한 50개국의 상황을 담은 100개의 보고서를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등 14개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실시하고, 북한 등 8개국 담당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하였습니다. 회의 기간 채택된 주요 결의안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장애아동이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포용적인 교육을 통해 이들의 권한을 강화(empower)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무표결 채택되었습니다. 환경권 운동가에 대한 탄압에 우려를 표하고 각국정부에 기업과 인권 NAP를 마련하고, 기업에게 인권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장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을 실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무표결 채택되었습니다.

'경제개혁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이행원칙'을 보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표결을 거쳐 채택되었습니다. 각국이 인권지표를 활용하여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 및 조치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해소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를 실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무표결 채택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스포츠에서의 여성·인종차별, 인권과 민주주의와 법치, 독자 제재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Link Human Rights Council adopts 12 resolutions (OHCHR. 3.21)
Human Rights Council closes fortieth session after adopting 29 resolutions, including on Syrian Arab Republic, Nicaragua, And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OHCHR. 3.22)

유엔 인권이사회, 인권주류화에 대한 고위급 토론 개최

유엔 인권이사회(HRC)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 관점에서의 인권주류화(human rights mainstreaming)에 대한 고위급 토론을 개최하고, 각 정책에 인권을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UN Photo by Violaine Martin

María Fernanda Espinosa Garcés 유엔 총회 의장은 세계가 당면한 문제들은 다자주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으며, 세계인권선언을 이행하는 것이 2030 지속가능발전 어젠다 실현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Michelle Bachelet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시민사회의 다자주의 프로세스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디지털 기술 정책에 인권을 통합시키는 것과 기후변화 정책을 설정할 때 인권을 반영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Deborah Greenfield 국제노동기구(ILO) 정책국장은 세계 2억 5,800만 명의 이주민 중 1억 6,400만 명이 이주노동자라고 강조하며, 각국이 이주노동자 정책을 만들때 인권과 국제 노동기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Link Human Rights Council holds panel discussion on human rights mainstreaming in the light of multilateralism (OHCHR. 2.25)

유엔 인권이사회, 사형제 관련 고위급 토론 개최

유엔 인권이사회(HRC)는 평등권(right to equality) 및 차별받지 않을 권리(right to non-discrimination) 측면에서 사형제에 대해 논의하는 고위급 토론을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작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사형제 모라토리움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고, 사형이 청소년, 가정폭력 피해여성, 소수자들에게 차별적으로 선고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Michelle Bachelet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사형수들 중에 빈곤층, 소수민족, 외국인, 정신질환 보유자 및 지적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이 과도하게(disproportionately) 많다고 지적하며, 각국에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 사형제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Bachelet 대표는 LGBTI인 것, 특정 정치집단 가입, 의견 표명, 종교의 자유 행사 등을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는 경우들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애초에 사형 선고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Melinda Janki 가이아나 사법연구소 위원장은 부유한 사람들은 변호사를 고용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빈곤층, 문맹, 지적장애인 등은 그럴 수 없다고 지적하며, 사형제는 특정 사람들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다는 메시지를 준다고 비판하였습니다.

Link Human Rights Council holds high-level panel on the death penalty,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the rights to non-discrimination and equality (OHCHR. 2.26.)

유엔 인권이사회, 사생활권에 대해 논의

Joseph Cannataci 유엔 사생활권(right to privacy)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HRC)에서 정보 감시, 젠더와 사생활, 건강 데이터에 초점을 맞춘 사생활권 연례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Cannataci 특별보고관은 먼저 각국 정부에게 유럽연합 정상회의(European Council)의 '개인정보 자동처리 관련 개인 신변 보호 협약 (CETS No. 108)'내용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Cannataci 특별보고관은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서 혐오가 전파되고 오래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 아동, 성소수자 등이 위협에 처해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Cannataci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젠더기반 사생활 침해는 인권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건강 데이터 베이스들이 위험하다고 우려하였습니다. Cannataci 특별보고관은 사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해서는 안 되며,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이러한 정보를 교환해서도 안 된다고 충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토론에서 사생활권은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생활권 향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모니터링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모니터링이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

Link Human Rights Council holds clustered interactive dialogue on the right to privacy and on cultural rights (OHCHR.3.1)

메인화면 >>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할 빈곤과 불평등



유엔 인권최고대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제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

Michelle Bachelet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인권이사회에서 불평등이 야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설명하고, 각국에 빈곤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소득, 재산, 자원에 대한 접근성, 사법절차에 대한 접근성(access to justice)에 있어서의 불평등은 평등, 존엄성, 인권 원칙 실현에 근본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Bachelet 대표는 부유한 국가에서도 자신이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으며,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혼란과 폭력을 야기하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achelet 대표는 불평등과 인권에 대한 존중 부재는 유엔의 3대 축(pillar)인 안보와 평화, 발전, 인권을 저해(erode)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빈곤, 차별,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침해 등 불평등이 만연할 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위험한 국제이주를 택하기도 합니다. 불평등은 불만과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고, 혐오와 폭력을 유발함으로써 세계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발전을 이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Bachelet 대표는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Link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says that inequalities can erode United Nations' pillars but that human rights offer hope (OHCHR. 3.6)

유엔 전문가, 경제개혁 과정에서 인권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

1 NO POVERTY



Juan Pablo Bohoslavsky 유엔 외채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담당 독립 전문가*는 유엔 인권이사회(HRC)에서 경제개혁 과정에서 인권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Bohoslavsky 전문가는 특히 경제위기 대응정책을 개발할 때 인권문제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외채와 저성장은 서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이 외채가 많은 것은 세계 자본의 흐름이 정의롭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Bohoslavsky 전문가는 또한, 유엔이 곧 발표할 '경제개혁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이행 원칙'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이행원칙은 국가 및 다른 행위자들이 인권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법적지침 및 운용지침의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경제위기시와 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인권이 어느 정도까지 보호되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Independent Expert on the Effects of Foreign Deb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Link Experts call for end to global epidemic of femicide (OHCHR 11.23)

메인화면 >>

유엔, 여성의 대표성 확보 필요 강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여성 리더십의 중요성 강조하는 성명 발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국제의원연맹(IPU)과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여성이 공적 분야에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하고 지도층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이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현의 선제조건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여성 국가원수는 7.2%, 여성 총리는 5.7%, 여성 국회의원은 19.1%에 불과했습니다. 여성 고위직 진출의 장애요소로는 여성의 권한을 강화해주는 정책의 부재, 여성에 대한 편견, 여성차별적인 법 및 관행, 성폭력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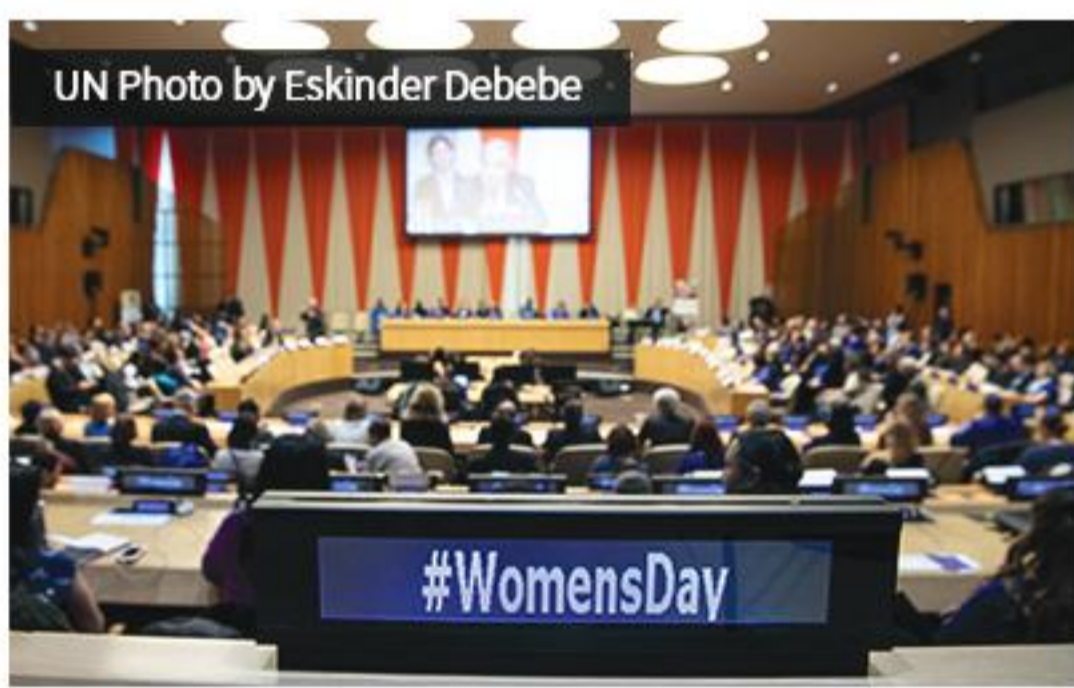
Hilary Gbedemah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장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 지도층에서 활동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발전, 인권, 평화를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Link [The world needs women's leadership, say UN human rights experts \(OHCHR 3.8\)](#)

유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의 사회 지도층 진출 중요성 강조

세계 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 3.8.)을 맞아 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여성의 권한강화(empowerment)와 성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Guterres 사무총장은 성평등은 근본적으로 권력의 문제이며, 세계는 수 세기 동안 여성을 무시하고 여성의 의견을 묵살해 왔으며 아직도 남성중심적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Guterres 사무총장은 의사결정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의 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며, 유엔은 처음으로 간부직급에서 성평등을 달성했다고 소개했습니다.

María Fernanda Espinosa 유엔 총회 의장은 공적인 업무에 참여하고 공적인 결정을 내리는 여성 지도자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하며, 모두가 여성들이 매일 겪는 차별과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Espinosa 의장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외된 여성들이 많으며, 이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그들의 아버지나 남자형제의 삶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위해서는 남녀 교육 격차를 줄이고, 보다 많은 여성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Phumzile Mlambo-Ngcuka 유엔 여성기구(UN Women) 사무총장 역시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정책, 인프라,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있어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성은 단순히 이미 개발된 솔루션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유엔은 1975년부터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왔으며, 이 날은 정치·경제 분야에 있어 여성인권 증진에 대한 지지를 결집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Link [Women's empowerment 'essential to global progress' says Guterres, marking International Day \(UN News. 3.7.\)](#)
[International Women's Day: Empowering more women decision-makers 'essential', says Guterres \(UN News. 3.8.\)](#)

유엔 총회 의장, 여성의 정치력이 심각하게 축소되고 있다고 경고



María Fernanda Espinosa 유엔 총회 의장은 연례 여성 운동가 회담에서 여성의 정치력이 심각하게 축소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015년에는 성별 격차(gender gap)를 줄이는 데에 30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되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된다면 107년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모든 지역에서 여성들은 아직도 대표직에서 낮은 대표성을 보이고 있으며, 정치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없으면 지속가능한 발전, 인권과 평화는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Phumzile Mlambo-Ngcuka 유엔여성기구(UN Women) 사무총장은 전 세계에서 단 10개의 국가만이 성평등한 의회를 가지고 있고, 기업의 단 5%만 여성 CEO이며 수치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유엔여성기구와 세계의원연맹의 발표한 '2019 정치 속 여성(Women in Politics)' 보고서에서는 3922명의 총리 가운데 여성은 812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2017년보다 겨우 2.4% 증가한 수치입니다.

Link [Political power of women suffering 'serious regression', General Assembly President warns \(UN News. 3.12.\)](#)

[메인화면 >>](#)

유엔,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 발표



UN Photo by Kibae Park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인신매매건수가 지난 13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



UN Photo by Gema Cortes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세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Global Report On Trafficking In Persons)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인신매매 피해자수와 인신매매 범죄자 유죄선고건율은 최근 13년 중 가장 높았습니다. 유죄선고율이 높아진 것은 전반적으로 국가들이 인신매매를 추적하는 능력이 향상되었거나, 인신매매 범죄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인신매매 통계를 수집·공개하는 기관이 있는

국가가 2009년에 26개국이던 것이 2018년에 65개 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아프리카·아시아 지역에서는 피해자 수와 유죄선고율이 둘 다 낮았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는 이 지역 출신 인신매매 피해자가 다른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볼 때, 아프리카·아시아 국가들에서 인신매매범들이 처벌받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보고서는 인신매매범에 대한 불처벌(impunity)은 인신매매를 저지를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신매매의 패턴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아메리카,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인신매매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자행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여자아이의 조혼이 인신매매의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중동에서는 난민캠프에서 여성들이 강제로 결혼당해 성적 착취 목적으로 이웃국가로 인신매매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Yury Fedotov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사무총장은 인신매매범들이 특히 여성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Fedotov 사무총장은 성적 착취 목적으로 인신매매된 피해자의 대부분과 강제노동 목적으로 인신매매된 피해자의 35%가 여성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Link Human trafficking cases hit a 13-year record high, new UN report shows (UN News. 1.29.)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보고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국제 이주의 맥락에서 여성 인신매매에 대해 논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국제이주의 맥락에서 여성 인신매매에 대한 일반 권고 작성을 위해 일반 토의를 개최하였습니다. Youla A. Haddadin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인신매매 자문관은 이번 일반권고는 이주과정에서 인신매매의 근원을 찾아내 이해관계자들이 적절한 대응책을 개발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Dalia Leinarte '유엔 여성 인신매매 실무그룹*' 위원은 인신매매는 여성과 여자아이들에게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는 젠더기반 범죄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인신매매 피해자의 70%가 여성이며, 이 중 성인의 83%, 여자아이의 72%는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된 것으로 나타

났기 때문입니다. Leinarte 위원은 현재는 인신매매를 젠더 중립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새 일반권고는 인신매매의 정의 및 취급 방식에 여성인권 관점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UN Photo by Martine Perret

*Working Group on trafficking in women and girls in the context of global migration

Link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discusses trafficking in women and girls in the context of global migration (OHCHR. 2.22.)

메인화면 >>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50주년



유엔 인권이사회, 민족주의 포퓰리즘과 극단적 우월주의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 총회 결의안 73/262에 따라 민족주의 포퓰리즘(nationalist populism)과 극단적 우월주의 사상들(extreme supremacist ideologies)에 대응하기 위한 토론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은 뉴질랜드 총기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Michelle Bachelet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유엔은 인종차별주의, 불관용, 제노포비아 및 모든 형태의 차별에 대한 종식을 옹호하고 있으며, 인종차별주의는 이 모든 것과 정반대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민족주의와 포퓰리즘은 우리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으며, 사회를 분열시키기 때문에 애국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더반 선언(Durban Declaration)을 언급하며, 평등을 보장하는데 있어 정치인과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는 모스크 테러사건을 유발한 불관용(intolerance)을 가장 강한 어조로 비난하였습니다. 토론 참석자들은 국가들이 급증하는 민족주의적 극단주의(nationalist extremism)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 가짜뉴스에 힘입어 선거에서 당선된 포퓰리스트들이 평범한 사람을 대변한다는 생각을 없애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Link Human Rights Council holds debate on the mitigation and countering of rising nationalist populism and extreme supremacist ideologies (OHCHR. 3.15)

유엔 인권이사회, 인종차별주의 및 불관용에 대한 일반토의 개최

유엔 인권이사회(HRC)는 인종차별주의, 인종차별, 제노포비아 및 불관용(intolerance)에 관한 일반토의를 개최했습니다. 토론 참석자들은 국제사회가 인종차별을 야기하는 구조적 요인들에 맞서고 인종차별주의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을 공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종교 및 신념 기반 불관용과 차별에 관한 보고서(Combating intolerance, negative stereotyping, stigmatization, discrimination, incitement to violence and violence against persons, based on religion or belief)를 소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와 보편적 인권 실현에 관해 다룬 비엔나 선언(Vienna Declaration)과 그 행동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각국의 대응노력을 취합하고 분석한 것입니다.

Link Human Rights Council holds general debate on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forms of intolerance (OHCHR. 3.19.)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보고서

유엔,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인종차별 근절 노력 촉구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3.21) 50주년을 맞아 E. Tendayi Achiume 유엔 인종차별 및 불관용 특별보고관* 등 유엔 전문가들은 각국 정부에 인종 간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고,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포퓰리스트적 레토릭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민족주의 포퓰리즘(nationalist populism)과 인종우월주의는 뉴질랜드 총기사건과 같은 인종적 폭력과, 고립, 차별을 낳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정부당국이 차별을 직접 행하거나 특정 인종을 소외시키는 경우도 있으며, 몇몇 국가는 국내에 인종차별이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유엔 전문가들은 특정한 사람들을 배척하는 편의주의적인 정치는 정의로운 민주질서와 합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각국은 인종적 평등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유엔 전문가들은 또한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개개인들에게 제노포비아, 인종차별, 불관용에 대항하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특히 일상적으로 인종적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혐오표현이 소셜미디어와 라디오를 통해 산불처럼 퍼져나가고 있으며, 독재국가는 물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이러한 혐오표현은 민주적 가치, 사회적 안정성, 평화를 위협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Guterres 사무총장은 특정 사람들이 인종, 종교, 종족 때문에 공격을 받는 것은 사회 전체가 타격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하고, 모두가 인간 존엄성과 평등 원칙을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Audrey Azoulay 유네스코(UNESCO) 사무총장은 일상적인 인종차별은 고용, 주거, 사회생활 등의 분야에서 소리 없이 사람들의 권리를 박탈한다고 우려했습니다. Michelle Bachelet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인종적, 종교적, 종족적 우월주의는 아무런 현실적인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Special Rapporteur on contemporary forms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Link 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21 March 2019 (OHCHR. 3.21.)
Marking international day, UN experts call for urgent action to end racial discrimination, in wake of New Zealand anti-Muslim attack (OHCHR.3.21)
유엔인권최고대표 영상

메인화면 >>

세계보건기구, 건강은 '특권'이 아니라 '권리'라고 강조



UN Photo by Kibae Park

세계보건기구, 건강은 '특권'이 아니라 '권리'라고 강조

세계 보건 의 날(World Health Day, 4.7)을 맞아 Tedros Adhanom Ghebreyesus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건강은 특권이 아닌 기본적인 인권(fundamental human right)이라고 강조하고, 각국에 보편적 의료보장제도(universal health care) 도입을 촉구하였습니다. WHO에 따르면 세계 인구 절반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1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극심한 빈곤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Ghebreyesus 사무총장은 환자들이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자녀의 미래를 망치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우려했습니다. 의료보장 범위 확대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의 하나이기도 하며, WHO는 특히 1차 보건의료(primary health care)에 투자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Ghebreyesus 사무총장은 사람들이 건강해야 교육을 받고, 일을 하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경제발전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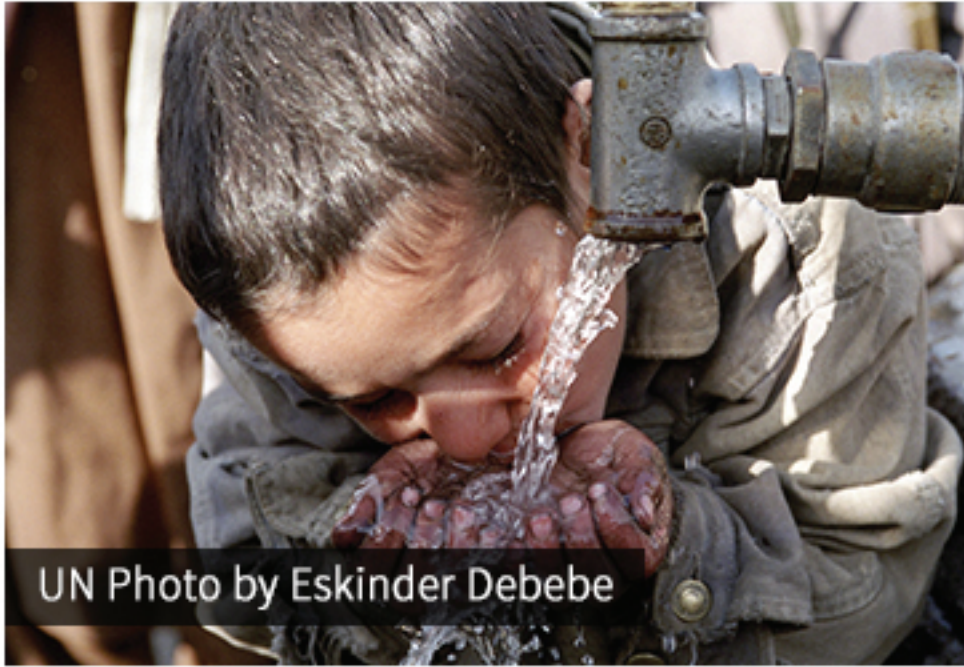
Link 'Health is a right, not a privilege' says WHO chief on World Health Day (UN News. 4.7)

유니세프, 총보다 깨끗하지 못한 식수로 인해 사망하는 아동이 더 많다고 발표

유니세프(UNICEF)는 분쟁국가에서 아동들이 총격보다 깨끗하지 못한 식수로 인해 사망할 확률이 더 높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5세 미만 영아들의 경우, 깨끗하지 못한 식수위생(Water, Sanitation, and Hygiene, WASH)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분쟁으로 사망할 확률보다 20배 더 높았습니다.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85,700 명이 WASH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였으며, 이는 분쟁으로 사망한 30,900명 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UN Photo by Eskinder Debebe



UN Photo by Eskinder Debebe

깨끗한 식수와 위생시설의 부재는 아이들을 다양한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영양실조, 설사병, 장티푸스, 콜레라, 소아마비에 걸릴 위험이 증가합니다. 최빈국에서는 아동들이 가족이 사용할 물을 구하러 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자 아이들은 물을 길러 가거나 화장실 사용을 위해 밖에 나가는 과정에서 성폭력에 노출됩니다. 또한, 여자 아이들은 학교에 깨끗한 화장실이 없을 경우 생리 기간 학교를 결석하기도 합니다. 유니세프는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 2018년 3,530만 명에게 깨끗한 식수 및 위생시설을 보급하였습니다.

Link More children killed by unsafe water, than bullets, says UNICEF chief (UN News. 3.21.)
유니세프(UNICEF) 보고서

세계보건기구, 기본적인 식수위생시설의 부재로 수백만 명의 목숨이 위험에 처해있다고 우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UNICEF)는 세계 식수위생(Water, Sanitation, and Hygiene, WASH)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각국에 치료 가능한 전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UN Photo by Martine Perret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지에 위치한 의료 센터(-medical centres) 4곳 중 1곳에는 기본적 식수위생 시설이 없어 20억 명의 사람들이 심각한 건강 위협에 노출되어있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보건 시설(health care facilities) 5곳 중 1곳, 병원(hospitals) 10곳 중 1곳, 소규모 의료시설(smaller health facilities) 5곳 중 1곳에는 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가 간 불평등이 심각하며, 최빈국(LDCs)의 경우 모든 의료시설의 절반가량만 화장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빈국에서 사는 1,700만 명의 산모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각국의 국내 불평등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 의료시설에 제대로 된 화장실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아 병원직원과 환자들은 인분에 포함된 균으로 인해 걸리는 질병에 걸릴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립병원보다 국립병원에 화장실이 없을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필요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의료시설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WHO는 향후 매 2년마다 이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 진전사항을 모니터할 계획입니다.



UN Photo by Patricia Esteve

Link Lack of basic water facilities risks millions of lives globally: UN health agency (UN News 4.3)

메인화면 >>

유엔, 여성인권 증진 촉구



Photo by Frank van Beek

유엔, 법적으로 성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에 필수적이라고 강조

제 63차 여성 지위 위원회(CSW) 개최를 기념하여,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 인구기금(UNFPA), 유엔여성기금(UNIFEM), 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ESCA)는 공동으로 아랍국가의 차별, 가족법, 노동법, 형법을 다루는 회의를 열고, 법적으로 성평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사법절차에 대한 접근성 및 경제사회적 이득 등을 포함해 사회 전반에서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때 달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법 조문의 내용 및 그 실천 과정에서 성평등을 보장하지 않으면 지속가능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법망을 피해 자행되는 성폭력은 정의(gender justice)를 구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우려하였습니다. 한 예로, 몇몇 아랍국가에서는 아직도 여성에 대한 명예범죄가 자행되고 있으며, 이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은 국가마다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랍에서도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으며, 튀니지는 정부 고위 인사를 임명할 때 4명의 후보를 추천해야 하는데, 이 중 2명은 여성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법령을 소개하였습니다.

※ CSW는 젠더평등 및 여성 권한강화(empowerment)를 촉진시키기 위한 글로벌 전략을 개발

Link Gender equality, justice in law and practice: Essentia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News. 3.22)

유엔인구기금,

임신·출산을 포함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관련 보고서 발표 (UN News. 4.10)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10명 중 4명은 파트너의 성적 요구를 싫어도 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UNFPA는 동의에 의한 성관계를 늘리고 여성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UN Photo by Eskinder Debebe

세계 51개국의 15-49세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피임을 하는 여성은 1969년에 전체 여성의 24%였던 것이 2019년에 5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2억 1,400만 명의 여성이 문화적·경제적 이유로 피임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매일 800명의 여성이 임신·출산 관련 이유로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임신부·산모 사망(maternal death)의

2/3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UNFPA는 올해에도 3,500만 명의 여성이 임신·출산 관련 의료서비스(reproductive health service)를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Natalia Kanem 유엔인구기금(UNFPA) 사무총장은 임신·출산을 포함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을 행사하지 못 하는 여성은 교육, 수입, 안전 등의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결국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지 못하게 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Kanem 사무총장은 각국 정부에게 1994년 세계 인구개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에서 임신·출산을 포함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로 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오는 11월 케냐에서 ICPD 25주년 회의가 개최될 계획입니다.

Link More than four in 10 women, live in fear of refusing partner's sexual demands, new UN global study finds (UN News. 4.10)
유니세프(UNICEF) 보고서

유엔 전문가, 생리를 터부시 하는 태도 변화 촉구 (UN News. 3.5)

유엔 전문가들은 생리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치심과 생리중인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여성 인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여성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이러한 차별을 근절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생리에 대한 지속적이고 부정적인 사회문화적 규범, 낙인, 잘못된 인식, 터부 등이 여성들을 소외시키고 차별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서는 생리중인 여성은 오염되고 불결하다고 여기며, 종교적, 문화적,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빈곤한 국가에서는 공공시설에서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위생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하였습니다.

Link Break taboo around menstruation, act to end 'disempowering' discrimination, say UN experts (UN News. 3.5)

[메인화면 >>](#)

평화적 집회의 자유



유엔 전문가들, 프랑스 당국의“노란 조끼”시위대에 대한 인권 침해 비판

홍성필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장 등 유엔 전문가들은 프랑스 정부가 “노란 조끼 (gilets jaunes)”시위를 과도하게 진압한 측면이 있으며, 새로 준비 중인 시위 진압 법에 대해 재고해볼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유엔 전문가들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가 시위를 과잉진압했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제기되었으며, 시위대 1,700명 이상이 부상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체포 및 구금, 시위 참여자의 소지품 몰수 등 인권침해가 있었으며, 수류탄과 고무총 같은 소위 “치명적이지 않은(non-lethal)” 무기 사용 과정에서 심각한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유엔 전문가들은 시위가 수 주 간 계속되었음에도 시위 관리 방식에 개선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전문가들은 몇몇 시위대가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위대를 과잉진압하는 것은 국민들이 근본적인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시위 중 폭력을 진압하겠다는 명분으로 현재 프랑스 의회에 제안되어 있는 법은 프랑스가 당사국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자유권규약, ICCPR)’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위에 대한 행정금지, 추가적 시위 통제 방안 신설, 제재 부과 등은 시민들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freedom of peaceful assembly)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 자의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Link [France: UN experts denounce severe rights restrictions on “gilets jaunes” protesters \(OHCHR. 2.14\)](#)

[메인화면 >>](#)

기업과 인권



유엔 전문가, 글로벌 투자기관들의 주거권 침해 비판

Surya Deva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장 등 유엔 전문가들은 글로벌 사모펀드 및 투자기관들이 무리하게 집값을 올리고 세입자를 내쫓으면서 이들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있는 행태를 비판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북아메리카, 아시아 등지에 수천 개의 집을 보유한 Blackstone Group의 영업은 주거권(right to housing)과 관련해 국제 인권법을 침해했다고 지적하며, 해당 그룹에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Blackstone Group 등 투자기관들이 건물을 인수하자마자 집세를 50%가량 올려 세입자들이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든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유엔 전문가들은 Blackstone Group 및 이와 유사한 투자기관들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투자회사들이 자사의 기업활동이 주민들의 주거권 향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지 파악 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을 경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권 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실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유엔 전문가들은 또한 각국은 인권 보호 의무가 있으며, 각국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규제하여 이러한 투자가 적정 주거를 약화시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Link Tenants ‘forced out their homes’ by global investment firms, say UN experts (UN News. 3.26.)

국제노동기구, 직장 내 여성차별 실태 보고서 발간

국제노동기구(ILO)는 여성이 직장에서 겪는 차별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우선 노동자 수에서 남녀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직업을 가진 여성은 13억 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지난 27년간 겨우 2% 증가한 것으로 아직 직업을 가진 남성(2억 명) 수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직도 유리천장이 존재하며, 관리자급 직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3 미만입니다.

임금측면에서도 남녀격차가 관찰되었습니다. 세계 평균으로 볼 때 여성 임금이 남성이 받는 임금 보다 20%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은 육아로 인한 불이익 때문에 임금을 더 적게 받고, 상대적으로 남성은 임금 프리미엄을 누리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성이 무급 돌봄 노동(caregiving) 및 가사에 할애하는 시간은 지난 20년간 거의 줄어들지 않은 반면, 남성이 돌봄에 참여하는 시간은 1일당 8분 꼴로 증가하였으며, 이 속도로 남녀가 무급 돌봄 노동에 투자하는 시간이 같아지려면 20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ILO는 남성이 돌봄 노동을 분담해야 여성이 관리자 급으로 승진하기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성들은 또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가내 노동이나 가업에 기여하는 등 취약한 일자리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ILO는 이러한 직장 내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정책 변화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Link Women still struggle to find a job, let alone reach the top: new UN report calls for ‘quantum leap’ (UN News. 3.7.)

유엔 글로벌 컴팩트, 기업들이 성평등 ‘백래쉬’를 겪고 있다고 발표

유엔 글로벌 컴팩트(UN Global Compact)는 전 세계 기업 내 성평등 저해요소들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으며, 전 세계 수많은 기업가들이 여기에 참석하였습니다. 유엔 글로벌 컴팩트는 기업들이 다양성을 위한 이니셔티브들을 시행하면서 성평등 달성에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저항과 ‘백래쉬’가 아직 남아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백래쉬가 생기는 이유로는 특정 업계가 특정 성별에 더 잘 맞는다는 믿음, 여성이 직장에서 이익을 얻을 경우 자신이 기회, 지위, 직위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성평등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Link Despite progress, companies face gender equality ‘backlash’: UN business body (UN News 3.18)

유엔, 인도의 기업과 인권 NAP 수립 계획 환영

인도는 아시아 국가 최초로 기업과 인권 NAP(National Action Plan on Business and Human Rights)를 수립하기로 했으며, 준비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인도는 2020년까지 NAP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국민 대화를 곧 개최할 예정입니다. 인도는 최근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책임있는 기업 활동에 관한 국가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인도정부에게 실무그룹의 NAP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포용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세계 모든 국가에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할 것을 권고했으며, 현재까지 21개국이 NAP를 수립하였고, 23개국이 NAP 수립 과정에 있습니다.

*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Link UN expert group welcomes India’s plan to promote corporate respect for human rights (OHCHR 3.22)

[메인화면 >>](#)

위협받는 주거권



UN Photo by Basir Seerat

유엔 특별보고관, 국가들이 주택대란으로 고통받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돕지 않고 있다고 비판

Leilani Farha 유엔 적정주거 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이사회(HRC)에서 노숙자를 방치하고 강제퇴거당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수단도 보장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비판하고, 국가들이 주거권(right to housing)을 진지하게 인권으로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Farha 특별보고관에 따르면 주택의 상품화는 세계적으로 빈부격차를 증가시켰으며, 지난 5년간 노숙자는 점점 증가했고, 강제퇴거도 줄지 않았다고 합니다. Farha 특별보고관은 임시거주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법원 명령 없이 강제퇴거 시키고, 노숙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등의 행태가 관찰되고 있으며, 이는 주거권을 침해받은 사람들이 인류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Farha 특별보고관은 사람들이 주거권을 보호받기 위해 사법절차에 접근하는 것(access to justice)을 거부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런 국가들은 사실상 특정 권리가 더 중요하며, 권리들 간에 서열이 있고, 나아가 사람들 간에 서열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법접근이 보장되지 않으면 주거권이 인권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Farha 특별보고관은 각국은 국제인권법이 사법부를 포함한 정부 전 부처에 적용되도록 해야만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UN Photo by Logan Abassi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Farha 특별보고관은 이집트와 대한민국 국가 방문에 대해서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지난 50년간 주거권 실현에 큰 진전이 있었으며, 세계에서 공공지원주택 프로그램 규모가 가장 큰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30만 명 이상의 저소득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지내고 있으며, 이들의 상황은 사실상 노숙자와 비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Farha 특별보고관은 한국이 주거권 관련 몇몇 권고를 이미 이행했으며, 앞으로도 권고를 이행할 것으로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Farha 특별보고관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하고, '주거복지 로드맵' 등 노인과 청년을 위한 주거 대책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 Special Rapporteur on adequate housing as a component of the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and on the right to non-discrimination in this context

Link States are failing millions mired in housing crisis, says UN expert (OHCHR. 3.4)
Human Rights Council holds clustered interactive dialogue on the environment and on adequate housing (OHCHR. 3.4.)

[메인화면 >>](#)

분쟁과정에서의 인권침해



Photo by Logan Abassi

유엔 사무총장, 무력분쟁시 아동 인권침해 예방 촉구

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무력 분쟁 과정에서 고통을 겪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Act to Protect Children Affected by Conflict 캠페인을 개시하고, 각국에 참여를 호소하였습니다.

분쟁 시 아동은 다양한 형태로 인권침해를 당하며, 유엔은 살해 및 신체 절단, 소년병 징집, 성폭력, 납치, 학교 및 병원에 대한 공격, 인도적 지원 거부 등을 아동에 대한 6대 중대한 인권침해 (the six grave violations)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이 분쟁과정에서 생존하여 사회 재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더라도 이들이 회복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아동들에게 장기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으면, 분쟁을 겪은 아동들은 사회적 낙인, 불충분한 교육 등으로 인한 2차 가해에 노출됩니다. 이 캠페인은 아동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에게 지원을 제공하며, 아동들이 피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UN Photo by Isaac Billy



UN Photo by Isaac Billy

Virginia Gamba ‘유엔 아동과 무력분쟁 특별대표’는 캠페인을 통해 아동권리 관련 국제 원칙 및 선언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소년병 징집 예방, 징집된 아동의 탈출 및 사회 재통합에 관련된 ‘파리 원칙(Paris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Children Associated with Armed Forces or Armed Groups)’, 분쟁중에도 아동이 지속적으로 교육받아야 한다고 천명한 ‘안전한 학교 선언(Safe Schools Declaration)’, 평화유지군 임무에 아동 보호 및 소년병 징집 예방을 포함시킬 것을 약속하는 ‘밴쿠버 원칙(Vancouver Principles)’ 등이 포함됩니다.

Link Help prevent children ‘from becoming victims in the first place’, implores Guterres at campaign launch (UN News. 4.2.)
[캠페인 페이지](#)

유엔, 분쟁과정에서의 시민 피해 최소화 촉구

Mark Lowcock 유엔 인도적업무 담당 사무차장은 분쟁에서 전투에 연루되지 않은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는데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강간이 전쟁의 무기로 사용되는 일이 증가하고 있어 강제이주 여성 5명 중 1명은 성폭력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분쟁으로 인해 2017년 기준 21,000건 이상의 아동권리 침해가 발생했습니다.

Lowcock 사무차장은 각국에 시민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조치를 도입하고,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을 준수하도록 시민들을 보호하는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보리 제재 등을 활용해 분쟁당사자들이 국제인도법을 준수할 유인책 및 미준수시 불이익(penalty)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인도적 사업이 무장단체의 방해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국제 제재나 대테러 정책이 인도적 활동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엄정 수사 및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UN Photo by Nektarios Markogiannis

Link Wars have rules: 5 things the UN humanitarian chief wants countries to tackle so human suffering in conflict can be minimized (UN News. 4.1.)

[메인화면 >>](#)

06

JUNE

4 June

세계 무력분쟁의 아동 피해자의 날

International Day of Innocent Children Victims of Aggression (A/RES/ES-7/8)

5 June

세계 환경의 날

World Environment Day (A/RES/2994 (XXVII))

12 June

세계 아동 노동 반대의 날

World Day Against Child Labour

13 June

국제 알비노의 날

International Albinism Awareness Day (A/RES/69/170)

15 June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

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 (A/RES/66/127)

19 June

분쟁 중 성폭력 철폐의 날

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Sexual Violence in Conflict (A/RES/69/293)

20 June

세계 난민의 날

World Refugee Day (A/RES/55/76)

23 June

국제 미망인의 날

International Widows' Day (A/RES/65/189)

26 June

세계 마약 남용 및 불법 인신매매 방지의 날

International Day against Drug Abuse and Illicit Trafficking (A/RES/42/112)

26 June

유엔 세계 고문 피해자 지원의 날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Day in Support of Victims of Torture (A/RES/52/149)

27 June

중소기업의 날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Day (A/RES/71/279)

[메인화면 >>](#)

국제인권 뉴스레터

07

JULY

6 July (first Saturday in July)

국제 협동조합의 날

International Day of Cooperatives (A/RES/47/90)

15 July

세계 청소년 기술의 날

World Youth Skills Day (A/RES/69/145)

18 July

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

Nelson Mandela International Day (A/RES/64/13)

30 July

세계 우정의 날

International Day of Friendship (A/RES/65/275)

30 July

세계 인신매매 방지의 날

World Day against Trafficking in Persons (A/RES/68/192)

[메인화면 >>](#)

08

AUGUST

9 August

세계 선주민의 날

International Day of the World's Indigenous Peoples (A/RES/49/214)

12 August

세계 청소년의 날

International Youth Day (A/RES/54/120)

19 August

세계 인도주의의 날

World Humanitarian Day (A/RES/63/139)

21 August

세계 테러 희생자 추모의 날

International Day of Remembrance and Tribute to the Victims of Terrorism (A/RES/72/165)

23 August

국제 노예무역 폐지 기념일

International Day for the Remembrance of the Slave Trade and Its Abolition [UNESCO] (29 C/Resolution 40)

30 August

국제 강제 실종 피해자의 날

International Day of the Victims of Enforced Disappearances (A/RES/65/209)

[메인화면 >>](#)